

韓國文學史와 「-ism」 問題

李 起 哲

〈內 容〉

I. 序 言

II. 本 論

1. 「-ism」의 出現과 그 性格
2. 文學史와 「-ism」이 가지는 意義와 盲點
3. 「-ism」 대신으로 쓰인 用語의 考察

III. 結 言

I. 序 言

既述된 韓國文學史는 數種의 古代文學史와 數種의 近代文學史 또는 現代文學史로서 大別될 수 있다. 例를 들면 李明善의 「朝鮮文學史」 金思燁의 「改稿國文學史」 趙潤濟의 「教育 國文學史」와 「國文學史」 우리어문회編의 「國文學史」등의 古代文學史와, 白鐵의 「新文學思潮史」 趙演鉉의 「韓國現代文學史」 林和의 「朝鮮文學史」 金允植 김현의 「韓國文學史」 등의 近代(또는 現代)文學史인데 이 중에서도 대개 古代文學史는 趙潤濟의 「國文學史」 近代(또는 現代)文學史는 趙演鉉의 「韓國現代文學史」와 白鐵의 「新文學思潮史」로서 代表 되는 것 같다.

따라서 本考는 叙上한 趙潤濟의 「國文學史」와 趙演鉉의 「韓國現代文學史」 白鐵의 「新文學思潮史」를 典據로 하여 우리 文學史에 나타난

- ① 「-ism」(또는 主義)의 出現과 그 性格 그리고 그것이 가지는 外國文學史에 있어서의 그것과의 거리 關係
- ② 「-ism」(또는 主義)가 가지는 意義와 盲點
- ③ 「-ism」(또는 主義)의 대신으로 쓰인 用語 考察 등을 中心으로 검토해 볼려고 한다.

文學史 記述은 애초부터 完全한 하나의 科學的 記述만일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하나의 創作物일 수도 없다는 큰 問題點을 안고 出發한다. 이 말은 文學史는 하나의 文書 記錄만일 수도 없고 하나의 Fiction이 될 수도 없다는 말로 바꿔 놓을 수도 있는데 이러한 問題點 때문에 모든 文學史는 記述者의 觀點이나 主觀의 眼識을 전혀 벗어날수 있다고는 말하지 못하는 것이며 既往의 著述에서도 여러가지 異見과 問題點이 惹起되어 온 것이라 할수 있다.

예를 들면, 文學史의 時代 區分에 있어서 中國이나 日本의 경우처럼 王朝中心(車涸轅의 中國文學史등)으로 하느냐, 西歐 系統에서처럼 王朝와 時代를 아울러 보느냐(Lafcadio Hearn의 A history of English literature등) 美國의 경우처럼 文化的 또는 作家와 作品 發生을 爲主로 하느냐(Marcus Cunliffe의 History of American literature 또는 R. E. Spiller의 The cycle of American literature등), 우리의 近代(또는 現代) 文學史의 경우 趙演鉉의 경우처럼 文壇 中心으로 보느냐 白鐵의 경우처럼 思潮 中心으로 보느냐 하는 問題라든지, 우리 文學史에서 新文學(新小說과 新體詩등의 開化期 文學)의 位置는 古代 文學史에 포함될 것이냐 近代 文學史에 포함될 것이냐 하는 問題—이것은 現在까지의 우리 文學史 記述에서 보면 新文學은 古代 文學史에서는 거개가 다 現代文學이라는 이름 아래 묶어 둔 것 같은데 예를 들면 金思燁의 「改稿 國文學史」에는 ‘現代 文學(新文藝의 發芽)」로, 趙潤濟의 「國文學史」에서는 ‘最近世’ 運動時代(甲午更張—3.1 運動)現代, 復歸 時代(3.1 運動 以後), 로 一趙潤濟 博士의 경우에 있어서는 大分類로 現代文學을 내세우지는 않았지만, 大略 胎動, 形成 時代가 上古 萎縮時代가 中古, 蘇生 育成 時代가 近古 發展反省 時代가 近世 運動時代가 最近世 復歸 時代가 現代가 될 것”이라고 하고 있다. 우리 어문학회編 「國文學史」에서는, 現代 文學(新文學—現代)로 되어 있어서 명칭상의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現代 文學 또는 最近世 文學 즉 新文學(新小說 新體詩)을 포함하고 있는 것을 분수 있고 단 例外로 李明善의 「朝鮮文學史」에는 古代文學史를 原始 文學(三韓時代—統一 新羅時代)과 封建 文學

1) 趙潤濟, 國文學史 p.9. 趙潤濟 博士의 時代 區分에서 우리가 興味있게 관찰할 수 있는 것은 그는 文學史를 하나의 生命體로 보고 있다는 點이며 그렇게 본다면 文學史를 Darwin의 進化論的 生物學的 根柢를 借用하여 記述하려는 브룬머에르의 眼目과 趙潤濟의 立場은 類似하다고 볼 수 있고 또한 文學은 변천할 뿐이지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T. S. Eliot의 立場을 다시 文學은 변천할 뿐아니라 발전하는 것으로 바꿔 놓을 수도 있다.

(統三時代-高麗-李朝까지)으로만 나누어 놓고 新文學은 전혀 言及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趙演鉉의 「韓國現代文學史」에서는 「近代文學의 胎動」 「近代文學의 誕生」에서 「新文學」을 넣고 있고 白鐵의 「新文學思潮史」에서는 「開化思潮와 新文學」에서 新文學을 「近代文學」에 넣고 있다. 그리고 金允植과 金현의 「韓國文學史」에서는 近代文學을 李朝 英正祖 時代와 朴趾源의 出現으로 부터 잡고 있는 것과 같은 (사실상 이 見解는 白鐵의 新文學思潮史 第一章에서 미리 말해지고 있다) 큰 差異를 볼 수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文學史에서의 20年代의 文學思潮를 「同人文壇時代」(趙演鉉)로 놓거나 外來文學의 影響하에 놓아 두고 보는 경향(白鐵)보다는 차라리 作品을 分析하고 그 主流的 傾向에 따라 政治文學(또는 階級文學) 社會文學(또는 小市民文學) 世態文學 田園文學 愛情文學 등으로 나누는 見解가 妥當하지 않을까 하는 느낌이 든다.²⁾ 이 點 趙芝薰의 韓國現代詩의 傾向과 分類를 보면 人生派 生活派 自然派 表現派 등으로 나누고 있어(韓國現代詩史) 示唆的이나 이는 詩에만 局限되어 있다.

이러한 諸問題를 內包한 우리 文學史에서 以上の 問題를 거의 別稿에서 다루도록 하고 여기서는 우선 위에서 밝힌 「-ism」(主義)의 出現, 그것의 意義와 旨點, 用語 考察등으로 限定해서 考察해보고자 한다.

Ⅱ. 本 論

① 「-ism」(또는 主義)의 出現과 그 性格

韓國文學史에서의 「-ism」(또는 主義)의 出現은 白鐵의 「新文學思潮史」와 趙演鉉의 「韓國現代文學史」 共히 「民族主義」라는 말의 擡頭에서 처음으로 出現한다. 民族主義의 概念과 時代 規定을 이상 두 典據에서 보면 「新文學思潮史」에서는 “隆熙 末年에서 1919년까지 이 10年間은 朝鮮의 民族主義가 生成된 時期였다. …… 民族主義란 說明할 것도 없이 根本에 있어 하나의 市民的 意識이다. 무엇보다 1919年의 3.1 運動이 典型的인 民族主義 運動의 表現이었다”³⁾라는 것과, 「韓國現代文學史」에서의 “어린 벗에게”와 「방황」의 主人公들의 更生을 「民族을 위함」과 「民族의 教化」에 동키게 함으로써 그의 啓蒙主義 思想과 함께 그의 民族主義 思想의 一端

2) 이상의 3가지 國文學史의 時代 區分의 樣相. 新文學의 位置, 20年代 文學의 分類와 그 命名등은 別稿에서 다룰 예정이다.

3) 白鐵 新文學思潮史 p.50

을 엿보여 주는 것”⁴⁾이라고 規定하고 있어 概念上 同一한 것으로 看做할 수 있으나 兩者 共히 民族主義란 規定과 用語의 用例는 있으나 前者에서는 啓蒙主義란 用例는 없고 이 啓蒙主義와 民族主義는 概念과 時代規定이 같은 것임으로⁵⁾ 同一한 것으로 볼 수가 있다. 뿐 아니라 이 때의 民族主義란 愛國主義 理想主義와도 같은 概念이었음을 到處에서 보아 알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古代文學史에서는 이러한 「主義」라든지 「-ism」의 使用은 尠혀 보이지 않고 그러한 點 우리 韓國古代文學史는 主義의 使用을 아예 托기하고 있는⁶⁾ 것이란 見解가 나올 법도 하다. 그것은 王朝를 中心으로 한 中國이나 日本의 文學史가 「-ism」이나 主義를 標榜하지 않는 것과도 關係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王朝의 形成이 없는 美國 文學과 같은 것과 比較해 볼 때 우리 文學史는 王朝 中心으로 時代를 區分하다 보면 「主義」를 붙이지 못하게 됨은 當然한 일일 것이며 (이 點 趙潤濟의 國文學史 時代 區分도 王朝 中心으로 되어 있다) 또 한 가지 理由는 文學史에서 「主義」(-ism)의 關束은 西歐的 概念이지 우리 文學의 概念은 아닌 것이라는 點을 생각할 수 있다. 西歐에서 「主義」라고 할 때는 적어도 政治 經濟上의 特徵과 한 國家 民族의 동똥 그러지고 集約된 笁연한 樣式이 있어야 되었고 例를 들어 古典主義만 해도 文藝復興 以後 16C~18C에 이르기까지 中世 封建制度의 붕괴와 王權의 伸張 統一 政治 經濟上의 特色과 對立國家間의 笁연한 樣式的 特色을 나타낸 時代의 文學⁷⁾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의 古代文學史에서는 西歐의 概念으로서의 「主義(-ism)」를 갖다 붙인다 해도 고작해서 新羅의 鄉歌와 李朝의 時調나 歌辭 정도 뿐이지 그외의 古朝鮮에서 統一 新羅 時代까지(즉 鄉歌 以前)의 長久한 時代와 高麗時代 文學까지도 「主義」를 붙이기는 지극히 곤란한 것임을 알 수 있고 또한 既往의 古代文學史에서는 主義(-ism)는 尠혀 쓰지 않고 있다. 따라서 主義(-ism)가 笁연히 우리 文學史에서 쓰이기 始作한 것은 1910年代의 啓蒙的 民族主義 보다는 훨씬 後의 1920年代 正確히 말하면 1918年 9月 26日에 刊行된 「泰西文藝新報」와 白大鎮 金崇暉등의 西歐의 文學과 그 紹

4) 趙演鉉; 韓國現代文學史 p. 231

5) 이 외에도 民族主義란 用語는 1930年代 Pro-文學에 對立하는 概念으로도 쓰이고 있고 이는 梁柱東의 1931年 1月 「朝鮮日報」 新年 論文 「文壇側面觀」에서 民族文學을 지지하는 一群의 作家라는 말에서 다시 대두 되었다.

6) 金烈圭 文學의 素材와 그 精神史的 背景(文學思想 遺卷 17)

7) 金良洙 古典主義文學(主界文藝講座 2卷 어문각판 p. 57)

介가 活潑히 되고 난 後의 일이다. 이것은 적어도 1919年 以後의 文化界와 青年會들의 綱領이 된 「世界의 知識을 廣求하자」는 슬로건⁸⁾ 아래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던 젊은 文化人 藝術家들에게서 보이는데 예를 들면

創造 第四號(1920年 2月) 極熊 崔承萬의 「文藝에 對한 雜感」에서 「……요새 青年들이 쓰는 小説이나 詩 가운데는 많이 自然主義風이 있는 것 같다……」

東仁의 「春園研究」에서는 「리아리즘의 實現이야말로 小説의 最高 흥미……」

金基鎮의 「十年間 朝鮮 文藝 變遷 過程」에서, 「1919年 이후…… 文藝理想主義, 自然主義, 魯漫主義, 藝術至上主義 惡魔主義 象徵主義 등의 潮流가 熾溢……」

春園의 「내가 「無情」을 쓸 때에 의도한 것은…… 基督敎의 博愛思想도 들어 갔다고 믿는다. 그리고 내力量이 미치는 한에 있어서 리아리즘으로도 하느라고 해 보았다……(朝光 5月號 文壇生活 30年の 懷古)⁹⁾

물론 이는 1936年에 쓴 春園의 글이지만 이 글 自體로 보아서 春園이 「無情」을 쓸 때 리아리즘을 의식하고 있었다는 것이 밝혀지며 이러한 등의 例로써 비로소 이때부터 「-ism」(또는 主義)는 우리 文學에서 별반 부담없이 쓰이게 된 것 같다.

② 文學史와 「-ism」(또는 主義)이 가지는 意義와 盲點

文學史란 항상 文學 研究家 또는 文學史家들의 恣意的인 產物이다. 어떤 文學人도 自己 스스로 「-ism」(또는 主義)의 그물안에 들어 앉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文學史家들은 이러한 「-ism」이나 主義의 團束을 포기해야 할 것인가? 포기한다고 하면 文學史에서 남는 것은 무엇이며 文學史家는 무엇을 할 것인가? 算術의 年代記란 記錄하고 있을 것인가? 單純한 事件을 背景으로 하는 文獻史料리 르포 정도의 記錄에만 머물러 있을 것인가? 이처럼 文學史란 「-ism」(主義)의 團束이 重要한 意味를 차지하는 것이 事實이다.

文學史란 소위 '偉대한 作家의 例外性'(金允植 김현)을 제하고 나면 거의 全體主義 또는 劃一主義와 通한다. 그러나 이때의 偉대한 作家의 例外性조차도 文學史家의 恣意性을 全的으로 모면할 길은 없는 듯 하다. 作品數의 多寡를 생각해 보면 春園이나 東仁 以後의 우리의 文學에서 偉

8) 金基鎮 「十年間 朝鮮 文化 變遷 過程」(新文學思潮史 p. 99再引)

9) 白鐵 新文學思潮史 p. 84-110

대한 作家 또는 偉大한 小數의 作品이 文學史家들의 恣意에 의해 영영 묻혀 버리고만 것이 없다고 누가 장담할 것이며, 그것이 오늘날 처럼 多樣하고 폭 넓은 것이 되었을 때는 그러한 점이 더욱더 甚해진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인가. 또는 反對로 그것 때문에 平凡한 作品이, 時代를 代表하는 偉大한 作品이나 「-ism」의 主流의 作品으로 된적이 없다고는 누가 장담할 것인가.

“文學史를 區劃主義의 이라고 이름 지어도 좋다. 個我主義의 挑戰 앞에서 文學史는 個性을 털어 내버리고 난 뒤 남은 共通素를 추상한 抽象主義¹⁰⁾라는 見解는 그래도 厚意的이다. 왜냐하면 同時代의 文學의 共通素를 추상한다면 적어도 그 時代의 共通 因子는 捨象되지 않고 남을 수 있기 때문이며 그러나 全的으로 文學史家의 恣意的 史觀 또는 眼目에 依해서라면 그 史觀과 眼目に 포착 또는 的中되지 않는 文學은 그 眞價와는 關係 없이 묻혀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尹東柱 李陸史는 「新文學思潮史」 「韓國現代文學史」에서 共히 제외되어 있고 崔載瑞 辛夕汀 金光均등이 「韓國現代文學史」에서는 제외되어 있으나 「新文學思潮史」에서는 주요하게 취급되어 있는가 하면(崔載瑞는 가볍게 터치되어 있음) 李殷相 金炯元등이 「新文學思潮史」에서는 제외되어 있으나 「韓國現代文學史」에서는 부각되어 있고 또한 金允植 김현의 「韓國文學史」에서는 위 兩者 共히 제외되어 있고 尹東柱가 close up 되어 있으며 그의 유독 申采浩 崔鉉培가 民族主義者로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文壇이나 文學人口가 散發的으로 팽창해 갈수록 심해질 것이며 결국 이후의 文學史는 史家의 獨斷과 恣意性으로 인해 小數人의 文學의 存在確認으로 點綴되어질 可能性이 짙은 것임도 否認 못할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文學을 전혀 散發的이고 僞我的으로 풀어두고 이것을 收斂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文學史나 文學研究를 必要로 하지 않는다는 말과 같은 것이 되어 버린다. 古代 以來로 모든 人間의 文化 活動은 一定한 研究家들과 그들의 史觀에 依해 收斂되어 왔고 時間的 또는 空間的 特徵으로 區分되고 特徵지워져 정리되어 왔다.

이러한 時空 위에서 서는 모든 「歷史的 世界는 “소위 權力的인 政治的 의지와 文化的 의지의 어느 것이 더 強力한가 하는 것은 지금까지의 東西洋의 歷史를 통해서 볼 때 再言할 必要도 없이 權力的인 힘이 主導的 役割을 해왔다”¹¹⁾고 볼 수 있다. 그것은 歷史的 事實에서 보면 韓末의 開化

10) 金烈圭 Ibid p. 235

11) 張德順 國文學通論 p. 44

派와 開化 思想이란 사실 “日本の 韓國 侵略 以前の 親日이란 開化派에게는 지금의 親美와 다를 바없다”¹²⁾는 見解나 1920年代 以後의 Pro文學이나 傾向派 文學도 역시 그 당시 日本의 NAPF 運動이나 러시아의 RAPF 까지 계산해 보면 時代的 물결이었고 그것이 하나의 가장 신선하고 새로운 思潮였으리라는 점을 看過해 버릴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政治的 非文學的 權力的인 意志와 制約을 떠날 수 없는 것이 文化史 또는 文學史라면 文化史 내지 文學史의 記述이나 그 時代 區分은 政治나 權力的 文學外的 條件에 의해 分類되고 記述 恣行될 것은 必然 理致이다.

이런 點에서 볼 때 文學을 主義나 「-ism」으로 特徵짓고 闡束하는 것은 그러한 外的 意志를 배제하고 純粹한 文化내지 文學 內的인 意志와 樣相으로 그 意味網을 포착할 수 있다는 點을 생각할 수 있다. 때로 文學에서 政治나 權力的 意志가 作用해서 배태된 文學이 있다해도 그것은 어느 결에 그러한 政治나 權력을 文學의 次元으로 용해할 수 있고 또는 政治나 文學과 並行할 수는 있으나 全的으로 政治나 權力 그것은 아닌 것이다. 또는 文學史의 時代 區분에 있어서 브룬뎀에르가 내린 勇議처럼 “실제에 있어서 物理學이나 化學의 時期를 世紀와 世紀가 바뀌는 때에 依하여 또는 帝王의 即位에 依하여 區劃하는 일이 없는데 무슨 理由로 文學上의 時期란을 이에 依하여 區劃하려 하는가? 1800年이라는 해에 있어서 作家들은 곧 19C의 作家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가? 그들은 1891年의 새해를 맞이하기 위하여 그 마음을 새롭게 하려고 努力하였다고 생각할 수 있는가?”¹³⁾라는 질문에서도 主義나 「-ism」은 어느 정도 自由로워질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의 「-ism」이나 主義는 더러는 그들의 精神的 背景 說明과 그들의 態度를 集約的 으로 闡明하고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1910年代의 英詩에서의 보다 意識的인 現代的 움직임의 하나인 Imagist movement는 적어도 1912年 3月號 Poetry誌에 F. S. Flint의 Imagism原則과 方向 提示가 있으며 佛蘭西의 超現實主義運動 또한 A. Breton으로 代表되는 超現實主義 宣言이 있는 것등과 같은 예로 보면 이것은 적어도 自意性和 意志의 움직임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위의 브룬뎀에르의 질문에 對답이 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以上과 같이 文學史에서의 「-ism」이나 主義는 그 意義와 盲點을 아울러 갖고 있는 것임으로 보다 면밀하고 냉철한 科學性과 文學 全般에 걸친 愛情

12. 金鵬九 「新文學 初期의 啓蒙의 思想과 近代의 自我(韓國人과 文學思想)

13. 張德順 上記書에서 再引.

을 가지고 對象을 재어야 하는 것임은 必要하고 自明한 일이다.

③ 「-ism」(主義) 대신으로 쓰인 用語의 考察

앞에서 나는 우리 古代文學史에서는 「-ism」이나 主義 使用을 포기 내지는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고 現代文學史에서도 3.1運動과 李光洙의 活動을 前後하여 생긴 民族主義라는 말에서 처음 始作 했으나 이것은 西歐의 概念에 부응하는 것으로서의 「-ism」(또는 主義)의 使用은 아니며 적어도 우리 文學史에서 「-ism」(主義)이 엄연히 또는 부담없이 사용된 것은 泰西文藝新報나 創造 以後의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 우리 文學史에서는 이러한 「-ism」이나 主義-그것은 한 국가 민족의 時間的 空間的 制約 아래서의 王權이나 政體의 確立과 伸張 統一 政治 經濟上의 特色 對立 國家間的 엄연한 樣式的 特色등을 지니는 의미의 含蓄을 가진다-는 전혀 無視 되었거나 없었던 것인가? 文學史란 처음부터 어떤 조건으로이든지 간에 사건이나 사실의 特徵의 分類를 그 가장 根幹으로 하고 있다고 할 때 우리 文學史라고 이러한 主義나 「-ism」이 전혀 無視되거나 없을 수는 없는 것이다. 단 그것은 文學史를 記述하는 사람들이나 文學 研究家들의 用語의 差異에 不 過한 것일 뿐이다.

그러면 우리 文學史에서는 主義나 「-ism」대신에 거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는 어떤 用語를 使用하고 있었는가.

㉠ 古代文學史에 보이는 用語 考察

- 派……道學派 詞章派
- 體……說話體 景幾體 歌辭體(이상 趙潤濟) 內簡體(張德順)
- 文學—鄉歌文學 歌辭文學 時調文學(趙潤濟)

㉡ 現代文學史에 보이는 用語 考察

- 派—人生派 自然派 生活派 表現派 現實派(趙芝薰, 現代詩史)
카프派 푸로派 신경향派 詩文學派 海外文學派(趙演鉉, 韓國 現代文學史) 創造派 自潮派 로만派 新傾向派 海外文學派 人生派(白鐵 新文學思潮史)
- 體—新體詩(共同)
- 文學—계몽文學 民族文學 海外文學 Pro文學 KAPF文學등(共同)
- 文學+派—국민문학派 詩文學派 海外文學派(白鐵 新文學思潮史)

이상과 같은 것을 發見할 수 있는데 古代文學史에서 보이는 「體」(說話體, 歌辭體등) 「文學」(鄉歌文學, 歌辭文學등) 등은 一般的으로 樣式的

分類에 의한 것으로 看做할 수 있을것 같다. 樣式이란 物質的 概念으로서 形態라는 말로 쓸수도 있겠으나 精神文化 즉 藝術上의 概念으로서 是 장르와 置換할 수 있을 것이다.¹⁴⁾ 따라서 古代文學史에서 보이는 「體」나 「文學」은 西歐의 藝術上의 用語 概念으로서 「樣式」 즉 「장르」와 같은 것으로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말하자면 西歐의 文學的 장르 分類에서 보는 「詩」「小說」「희곡」「수필」「평론」등이나 우리 文學의 장르 分類에서 보는 「雜歌」「鄉歌」「時調」「別曲」「樂章」「歌辭」「劇歌」「說話」「小說」「日記」「內簡」「紀行」「雜文」(李秉岐의 分類)¹⁵⁾와 같은 것이고 또한 高晶玉은 小說의 形態를 「翻譯體」「歌辭體」「內簡體」로 나누어서 장르와 文體까지도 混用하고 있는 사실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體」나 「文學」등은 本考의 主眼點인 「-ism」이나 主義와는 近似한 面이 없지도 않으나 또한 相當한 거리를 가지고 있기도 하므로 正작 여기서는 「-ism」이나 主義와 같은 것으로 말해 버릴수는 없다.

또한 用語의 使用에 注意를 했던 흔적으로는 「文學十派」로 부르고 있는 것을 例로 들 수 있다. 어떤 「-ism」이나 傾向으로 裁斷하기가 거북하기 때문에 이러한 「文學派」라는 이름을 붙인 것같은 흔적을 볼 수 있거니와 만약에 「文學=主義」「派=主義」로 불리워도 좋다고 할 경우 「文學派=主義主義」가 되어버리는 奇現象을 볼 수가 있는 것이며 뿐 아니라 「浪漫主義的 傾向」「寫實主義的 傾向」「民族主義的 傾向」등과 같은 「主義的 傾向」으로서 主義나 「-ism」을 붙이기를 망서리거나 注意하고 있는 흔적도 볼 수 있다. 이러한 諸現象을 捨象해버리고 나면 우리 文學史(古代文學史, 現代文學史, 全部)에서 西歐的 概念 또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概念으로서의 「主義」와 「-ism」에 해당하는 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앞 例에서와 같이 「派」가 가장 가까울것 같고 또 이는 例前의 여러 用語中 그 빈도도 가장 많은 것으로 보인다. 뿐 아니라 이 「派」는 적어도 文學上의 한 덩어리의 精神的 樣式的 形態的 特性的 分類가 可能하다는 點에서 主義나 「-ism」의 性格과 같은 것임을 알 수 있기도 한 것이다.

Ⅲ. 結 言

韓國文學史(古代文學史와 近代(또는 現代)文學史)에서 「-ism」(또는 主義)의 定立問題는 반드시 考察될 必要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本考는 資料의 不足으로 例擧가 不充分하고 또 그 例擧가 반드시 的確하다고는 말

14. 張德順 上記書 p. 31—40參照

15. Ibid

하지 않으나 적어도 本考에서 말해진 것과 같은 하나의 問題點은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우리의 古代文學史에서는 아예 「-ism」은 포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거니와 藝術家(또는 文學家)들은 어떤 主義나 類派에도 묶이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點에서 또는 한 類派의 一群이 形成되지 않은 「-ism」이나 主義란 無意味하다는 點에서 위와 같은 主義를 매기지 않는 “韓國文學史의 記述 態度는 賢명한 것”¹⁶⁾이라고도 할 수는 있겠으나 그것이 現今文學에 와서는 적어도 創作을 하는 측에서나 文學史家 또는 文學 研究家들의 立場에서도 모두 그들의 精神을 천명하려 하고 또한 그러한 Manifesto를 重示하는 것이 전혀 無用한 態度가 아니라고 볼진데 위의 見解는 반드시 마땅한 見解나 態度라고는 말할 수 없을 것 같다.

以上 本考에서 말해진 內容을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이 集約할 수 있겠다.

첫째, 「-ism」이나 主義가 우리 文學史에서 처음 出現한 것은 白鐵의 新文學思潮史와 趙演鉉의 「韓國現代文學史」에서 보면 3.1運動과 李光洙의 活動을 前後로 한 「民族主義」란 말로서 처음 나타난 것이며 이때의 民族主義란 啓蒙主義 理想主義 愛國主義와 같은 概念으로 쓰인 것이다. 그리고 既述된 모든 韓國 古代 文學史에 「主義」나 「-ism」이 전혀 쓰이지 않은 것은 西歐의 「-ism」形成, 條件으로서의 時間的 空間的 背景 아래 政治的 經濟的인 特徵과 한 國家 民族 한 社會의 集約된 樣式的 特性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中國과 日本의 文學史에서 그러하듯 單純한 王朝 中心으로만 記述하려했던 文學史이고 보면 우리 古代文學史에서 主義나 「-ism」의 표방이 없을 것은 당연한 일이다.

둘째, 文學史와 「-ism」(主義)이 가지는 意義와 盲點으로서, 文學史 또는 文學史에서의 「-ism」으로의 圖東은 恣意性을 버릴 수 없는 것이며 그러므로 해서 既述된 우리의 文學史(우리의 文學史 뿐 아니라 世界의 全 文學史)는 記述者들의 史觀이라는 美名 아래 劃一主義 全體主義 또는 區劃主義가 되어 왔던 것이며 그러한 例는 「新文學思潮史」와 「韓國現代文學史」 그리고 金允植 김현의 「韓國文學史」를 비교해 보면 截然히 드러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文學史 記述을 포기할 수도 文學史 記述에서 時間的 空間的 樣式的 特徵 分類인 主義(-ism)를 포기할 수도 없는 것이며 또한 「主義」의 標榜은 現今의 文學에서는 藝術的 精神의 標榜으로서 그 意義를 지니는 것이다.

셋째, 우리 文學史에서 「-ism」이나 「主義」代身으로 쓰인 用語는 없는

16. 金烈圭 Ibid

가를 考察해 보면 약간의 概念의 差別은 있으나 「派」「體」「文學」「文學派」 등의 用例가 보이거나 「體」「文學」「文學派」등은 文體와 장르의 區別이 되어 있지 않고 莫然히 混同되어 쓰이고 있는 것으로 보여 적어도 西歐的 概念에 부합되는 것으로서의 「主義」와 「-ism」에 對等한 關係로 놓을 수 있는 것은 「派」를 들 수 있다.